

‘빅뱅·2PM’... 톱 아이돌 입대 가요계 판도 바꿀까

13일 대성이 입소함에 따라 한류 그룹 ‘빅뱅’ 멤버 다섯 명 중 네명이 나란히 군복무를 하게 됐다.

또 다른 한류그룹 ‘2PM’은 멤버 택연이 지난해 군 복무를 시작한 이후 나머지 멤버들 역시 입대를 앞두고 있다.

한류를 이끌어온 2세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잇따라 입대하면서 당분간 가요계 판도가 요동칠 조짐이다. 빅뱅과 2PM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팬들을 몰고 다닌 그룹이자 소속사를 대표하는 팀이었던 만큼, 공백이 클 수밖에 없다.

◇YG·JYP, 빅뱅·2PM 공백 메워야

YG는 지난해부터 분주했다. 회사를 이끌어온 빅뱅 멤버들의 올해 입대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YG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그룹들의 상승세로 인해 전망이 어둡지는 않다.

YG, 후속그룹 ‘아이콘·위너·블랙핑크’ 활발한 활약 예고 JYP, 보이그룹 상승세 아쉽지만 ‘트와이스’ 기대주 노릇 톱 톱 3세대 아이돌 ‘엑소·방탄소년단’ 상승세 더욱 도드라질 듯

보이그룹 ‘아이콘’의 신곡은 최근 음원차트를 휩쓸었다.

또한 아이콘은 데뷔 4년 만에 첫 리얼리티 ‘아이콘TV’를 론칭하는 등 팬들과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보이그룹 ‘위너’도 컴백을 앞두고 있다.

떠오르는 걸그룹 ‘블랙핑크’ 역시 올해 활발한 활동이 예고됐다.

JYP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다. 걸그룹 ‘트와이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며 2PM 완전체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이그룹들의 화려한 상승세가 아쉽다.

그러나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갯세븐’이 시동을 걸고 있고, JYP의 수장 박진영이 야심차게 내놓은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데뷔를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

FNC엔터테인먼트도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의 프렌드 밴드 정용화를 시작으로 팀과 ‘FT아일랜드’ 등 간판 그룹 소속 멤버들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분주하다.

엔플라잉·SF9·허니스트 후속 보이그룹 퍼주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3세대 아이돌 상승세·2세대 전역들 활약 관심

2세대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의 공백 기간 동안, 3세대 아이돌의 대표주자인 ‘엑소’와 ‘방탄소년단’의 상승세는 더욱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엑소는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조폐공사가 공식 기념메달을 내달 출시하기로 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K팝 그룹 각종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두 팀의 멤버들이 입대를 하려면 3년 안팎의 시간이 남아 있어 남성 아이돌 그룹 시장의 양강 체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세대 아이돌 중 ‘전역

들’의 활약 여부가 관심사다.

지난해 두 멤버가 모두 전역한 ‘동방신기’가 가장 큰 관심사다. 동방신기는 오는 6월 8-10일 일본 요코하마 나스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한다.

7만50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무려 3일 간 21만명을 끌어모으게 된다.

일본 공연계 첫 나스스타디움 사흘 공연이라는 새 역사를 쓴다.

올해 국내에서도 새 앨범 발매가 예고된 만큼 이들의 인기 지속 여부가 보이그룹의 생명력을 가능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요계 관계자는 “톱 보이그룹이더라도 군입대 문제는 피할 수 없다”면서 “특정 팀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팬을 제외하고, 새로운 팀이 계속 수월해지는 아이돌 업계 특성상 팬층의 이동이 심할 수 있다. 공백기 이후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팀의 생명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뉴시스



소지섭·박신혜, 나영석 신작 출연 tvN ‘숲속의 작은 집’ 합류

배우 소지섭(41)과 박신혜(28)가 나영석 PD의 새 예능프로그램 ‘숲속의 작은 집’에 합류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 51K·솔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케이 블 채널 tvN이 내놓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새 예능 ‘숲속의 작은 집’에 합류해 현재 촬영 중에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른바 ‘자발적 고립 다큐멘터리’라는 콘셉트 하에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지섭과 박신혜를 통해 그릴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나영석 사단’이 내놓는 새 예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두 배우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조만간 제주도에서 촬영에 들어간다. ‘숲속의 작은 집’은 ‘윤식당’ 후속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정확한 방송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소지섭은 “누구나 한 번쯤은 모두로부터 떨어져 나 혼자 오롯이 지내는 시간을 꿈꿔 왔었다. 제주도 작은 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과 위안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제작진의 취지에 마음이 움직였다. 팍팍한 일상을 잠시나마 잊고,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씨니’ 베트남판 ‘고고 시스터즈’ 돌풍

개봉 첫주 현지 흥행 1위



베트남 버전이다. 베트남 대표 흥행감독 응웬 쩡중이 메가폰을 잡고, 베트남 인기 배우인 흥 안과 탄 항을 비롯해 떠오르는 신예 황 연찌비, 황 완 등이 주연했다.

‘고고 시스터즈’는 프리미어 시사 포함 개봉 첫날 누적 29만 명을 기록해 흥행 1위에 오른 데 이어 개봉 첫 주말 내내 1위를 고수했다.

이는 역대 베트남 로컬영화 ‘톱3’이자 역대 한-베트남 합작영화 1위 ‘내가 니 할매다’(수상한 그녀) 베트남 버전, 2015년 12월 개봉)의 개봉 주 스코어를 두 배 이상 뛰어 넘은 기록이다.

CJ HK 엔터테인먼트 정태선 대표는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코믹 요소가 강한 캐릭터와 베트남의 유명 올드송, 70년대 시대상을 결합해 코미디와 음악을 좋아하는 베트남 국민의 추억과 정서를 사로잡은 것이 흥행 주요 요인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씨니’ 베트남 버전의 성공은 CJ E&M의 글로벌 전략이 또 한 번 성공을 거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시스

“폭로자, 명예훼손 고소”... 던말릭, 성추행 사과 반복

“소속사 요청에 미투 인정” vs 레이블측 “본인이 직접 시인”



미성년자 팬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뒤 사과한 합작 가수 던말릭(22·문인섭)이 입장을 반복했다. 던말릭은 13일 인스타그램에 “더 이상 억울한 단순 성범죄자로 남을 수 없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최근 여성 두 분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처음 트위터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직후 “소속사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그는 “사죄의 글을 올린 적은 있으나, 당시 너무도 갑작스럽

게 발생한 일이라 일단 겁이 많이 났다”고 해명했다.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겪는 비나적인 여론에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돼 사실과 다르게 성추행을 했다고 마지못해 인정했다”는 얘기가.

그는 “제가 강제로 성관계를 요청했다고 폭로한 여성분은 합의에 따라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면서 “부끄럽고 사적인 대화지만 진실을 밝히고자 부득이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한다”라며 서로 호의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한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캡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던말릭은 “사유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저를 믿었던 팬들과 지인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면서 “그러나 조그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무척히 수사에 임해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반면 던말릭의 전 소속사 테이즈 엔터테인먼트는 레이블의 요청에 따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던말릭의 주장을 반박하며 “고발내용을 던말릭이 모두 인정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 함께 퇴출에 동의했

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SNS를 중심으로 한 래퍼에 대한 성추문 의혹이 급격하게 퍼졌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수장은 페미라는데 소속 래퍼라는 놈은 여고생 불러다가 성추행하고 어떻게든 합 해보려고 하고”라는 쓴 내용으로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동시에 해당 래퍼의 초성이 공개됐고, 이후 던말릭이 지목됐다. 그가 평소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터라 비난이 거셌다.

/뉴시스

송강호, 세종대왕 된다... 영화 ‘나랏말싸미’ 합류

배우 송강호(51)가 세종대왕이 된다.

13일 송강호의 소속사 후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송강호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담은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에서 ‘세종대왕’을 연기한다.

이 작품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내놓기까지 과정과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지만, 이 역사적 사건에 힘을 보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 ‘패러사이트’



촬영을 마무리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나랏말싸미’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작품에는 배우 박해일(41)도 합류한다. 박해일은 훈민정음 창제에 공을 세웠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 중 한 명 ‘심미 스님’을 연기한다.

/뉴시스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사랑과 행복이 싹트는 공간!
소중한 너만의 공간!
웃음이 넘쳐나는 공간!
채움건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04
채움건설 010-6265-0057

